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 취하" 신뢰 큰 걸음

조건없는 손배소 취하·조선하청지회 유감 표명·같은 사안 재발 방지 노력

합의 중재 이용우 의원 "공존 해법 찾을 신호·거제시장" 대승적 결단에 감사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경남 거제사업장 도크(선박 건조공간)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8일 한화오션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이 의원 등 중재로 이 손배소 취하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등과 이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화오션은 2022년 파업을 비롯한 조선하청지회 활동에 대해 제기한 2건의 손배소를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조선하청지회도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양측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은 "손배소를 취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지회는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손배소 취하 합의에 대해 사회 각계

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합의를 중재한 이 의원은 "양측의 합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동자와 원청사용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한화오션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기업, 지역 사회가 상생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하고, 노동자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사명 등이 변경됐고, 소송은 한화측이 이어받았다.

소송이 3년가량 이어져 오면서 양측 갈등은 지속됐고, 사회 각계에서는 취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7월과 8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논의와 법안 국회 통과 등으로 취하에 대한 노사 양측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 등이 제기됐지만, 합의 문구를 두고 양측은 입장차를 보였다.

지난 23일에는 1년 넘게 중단됐던 이 소송 재판이 재개하면서 합의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진정화 기자

SH·공인중개사협회, 상업용 부동산 공급 활성화 업무협약

상업용 부동산 매각 및 업무시설 임대 공급 활성화

‘한방’ 거래정보망과 SH 부동산 정보 연계로 시민 접근성 강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종호)는 상업용 부동산 공급 활성화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적 역할 확대를 위해 2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서울시 내 공사 소유 수익계약 대상 토지 및 분양 상가 매각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중개 활동 지원 ▲ 씨드큐브 창동 등 업무시설 임대 공급 활성화 ▲ SH의 부동산 정보와 협회의 '한방' 거래정보망을 연계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공급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적 역할 확대를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성 높은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심귀영 기자

‘KRC 재무 클린 시스템’ ‘건전하고 투명한 재무관리’

‘자금관리 체계화’, ‘재무역량 고도화’로 재무 건전성과 신뢰도 제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무관리 실현을 위해 'KRC 재무 클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자금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는 '자금관리 체계화'와 더불어 담당자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재무역량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사가 집행하는 예산이 매년 확대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무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사는 자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KRC 재무 클린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자금 모니터링과 적정성 검증 강화로 '자금관리 체계화'〉

공사는 먼저 자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자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업무 외 시간 입·출금이나 고액 거래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했으며, 계좌의 실제 잔액과 시스템 잔액을 대조하도록 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계 업무 장기 종사 직원에 대한 직무 순환 의무화 등 내부통제 대책을 수립해 부정 위험을 원천 차단했다.

"별빛 가득한 겨울 정원에서 만나는 샤넬의 홀리데이"

아시아태평양(APAC) 면세 최대 145.5㎡ 규모 '홀리데이 포디움' 선보여



신세계면세점이 샤넬과 함께 국내에서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시즌의 막을 연다.

신세계면세점이 오는 12월 5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샤넬(CHANEL)과 함께 '샤넬 윈터 컨스텔레이션(CHANEL WINTER CONSTELLATION)' 메가 포디움을 운영한다.

이번 포디움은 샤넬이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공항 면세점 가운데 최대 규모인 총 145.5㎡ 공간에서 선보이는 홀리데이 콘셉트 이벤트다.

샤넬의 상징인 N°5 향수를 중심으로 한 겨울 정원과 별자리 관측 천문대를 콘셉트로 구성돼, '코코 마드모아젤', '샹스 오 스펀 렌디드', '블루 드 샤넬' 등 향수,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등 샤넬 뷰티의 전체 라인업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다.

매장 내 설치된 천체망원경을 통해 샤넬 향수의 스토리를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공간 연출이 특징이며, 고객은 피부 진단 및 스킨케어 서비스, 메이크업 존, QR 코드 포인트 이벤트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

를 즐길 수 있다. 특히 포토존에서는 AR기술을 활용해 샤넬 로고 모양의 별빛과 대형 N°5 제품을 배경으로 실감나는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선보이는 한정 리미티드 제품과 샤넬의 프리미엄 향수 '레 젝스클루시프 드 샤넬(Les Exclusifs de Chanel)'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블루 드 샤넬 300ml', 'N°5 펄스 스프레이', '코코 마드모아젤 펄스 스프레이', 'N°5 화이트골드 바디오일', '코코 마드모아젤 펄리 바디오일' 등은 한국 면세점에서는 인천공항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상품이다.

팝업 초대장을 소지한 고객에게는 트래블 키트와 홀리데이 엽서가 증정되며, 사전 예약과 현장 예약을 통해 샤넬의 리프레이시 스킨케어 서비스 'LA MINUTE MODE AVION'도 경험할 수 있다. 샤넬 메가 팝업 포디움의 생생한 현장 모습은 신세계면세점 온라인몰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공식 SNS채널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한국도로공사 특별교통대책 시행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11월 1일(토)까지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세계 각국의 주요 이동 경로인 김해국제공항에서 경주IC까지 동선 중 교통량이 많은 중앙고속도로 대동TG~초정IC(양방향)에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교통용량 증대를 위해 총 311km 고속도로 구간 차단공사(긴급공사 제외)를 중지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 처리를 위해 안전순찰반을 추가로 운영하고(6개 지사, 588명→676명), 06시부터 21시까지 주요 요금소 7개소에 대형구난차를 사전 배치한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 노선 7개소 휴게소의 관리인력을

세계 각국의 주요 이동경로 내 갓길차로 운영, 공사 중지 등 교통소통 만전

휴게소 인력 확충하고 졸음쉼터 환경정비 등 고객 만족 향상 노력



평시 대비 27% 확충하고(184명→233명), 휴게소 내 홍보 데스크

를 운영하며, 졸음쉼터 내 환경정비는 일 3회 실시하고 화장실 청

결은 전문업체 추가청소를 통해서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교통상황을 국문과 영문으로 순차적으로 표출하고, APEC 행사장 인근 시내 일부 구간의 교통사항도 안내해 APEC 행사에 참석하려는 국내외 방문객들을 위한 교통안내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APEC 기간 내 경주를 찾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KB국민은행, 'KB 연금컨퍼런스' 개최... 금리하락기 대응전략 모색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지난 24일 DB퇴직연금 고객을 초청해 'KB연금컨퍼런스'를 열고 금리하락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운용 전략과 연금시장 전망을 공유했다.

지난 17일 부산에 이어 강남구 소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Winter is here'라는 제목으로 진

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각 기업의 DB퇴직연금 담당자 약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금리인하 기조 속 DB퇴직연금에서 예상되는 삼중고(수익률 하락, 부채부담 증가, 연발 상품부족)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연금시장 전망을 소개했다.

특히 부채 할인율,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 하락 등 금리하락이 가져올 부담금 납입 규모 증가와 연발 상품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부담금 납입과 전략적인 적립금 운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지용현 KB 자산운용 DB마케팅실장이 DB 전략상품을 주제로 DB퇴직연금에 적합한 채권형과 자산배분형 펀

드를 소개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2020년부터 임직원 DB 퇴직연금에 적립금 운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OCIO를 도입해 운용하는 등 DB적립금 운용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다년간의 풍부한 적립금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DB고객사의 적립금 운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하에 따른 재정검증 할인율과 수익률 하락이 진행되고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체계적인 운용성과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능동적인 시장변화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DB적립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송원 기자